



사라지는 놀이터...갈 곳 없는 아이들

**안전관리법 유효기간 종료
규정 통과 못한 놀이시설
광주·전남 107곳 이용 금지**

**영세아파트 교체비용 부담에
일부 철거 등 양극화 뚜렷**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D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엄마와 함께 나온 10살 짜리 남자 아이는 '이용금지'라고 적힌 내문이 붙어 있는 놀이기구 앞에서 "들어가지도 되느냐"며 엄마를 졸랐다. 엄마는 "위험하지 않게 고치는 중"이라며 말했지만 "언제 고쳐지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반면, 담벼락 사이에 둔 인근 K아파트 놀이터는 비슷한 시기에 폐쇄됐다. 최근 말끔하게 단장돼 개방됐다.

정부의 놀이터 안전성 검사 이후 '놀이시설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단지가 크고 주민 소득이 높은 아파트는 쉽게 개·보수에 재개방한 반면,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는 보수 비용이 없어 장기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가난한' 아파트일수록 놀이터가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



공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등 1821곳 가운데 강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용이 금지된 놀이터는 65곳에 이른다.

전남 지역도 주택단지 941곳 가운데 이들 놀이터 42곳이 유효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개선 및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기간 '이용 금지'되고 있는 놀이터의 경우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2000만~5000만 원 상당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회의를 거쳐야 보수 공사가 가능하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곳도 30% 수

준에 이르러 아이들의 상실감은 훨씬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놀이터를 없애는 대신, 주차장이나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이들 놀이터를 개·보수하면 좋겠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가 절거한 상태"라며 "단지가 크거나 여력이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놀이시설 대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작은 아파트일수록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유일한 놀이공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등이 15~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지원하는 시설 보수비 등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예산 부족, 형평성 논란 등도 고려해야 해 놀이터 개·보수 비용 지원도 여의치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세한 아파트들의 사정을 알지만 지난 7년간 유효기간을 찾기 때문에 아쩔 수 없다"면서 "차질 법 개정에도 '버티면 알아서 해주더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5·18 기록물 수집만점 새 등지에 기록관 수장고 이전 사실상 마무리

35주년 행사 때 임시개관 검토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기록관으로 옮겨졌다.

5·18 기록물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개관 수순만 남게 됐다.

8일 광주시 5·18 기록관 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이날 예술품 전문수송업체인 1t·5t 무전동 탑재 3대를 이용, 5·18 기념문화센터에 있던 5·18 기록물 수집만점 5·18 기록관 수장고로 옮겨졌다.

무전동차는 손상되면 치명적인 물건, 전자부품·귀금속·문화재·미술품 등을 운반하는 데 쓰인다.

추진기획단은 이날 이전된 5·18 기록물 5·18 기록관 수장고로 옮긴 뒤 일부 대표적 5·18 기록물에 대해서 1~3층에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층(5·18 항쟁사)과 2층(5·18 기록), 3층(5·18 유산) 전시실 전시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일각에선 5·18 기록관 전시작업이 이달 말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5·18 35주년 기념행사기간에 내외방객들이 민주·인권·평화운동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개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5·18 기록관 운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최근 합의점을 찾아가는 만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진 안 된다는 것이다.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조만간 5·18 기록관 전시작업이 마무리 되는데, 각 층별로 전시 해설자와 안전요원만 우선 배치된다면 5·18 행사기간에 임시 개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매수남 채팅 유인 금품 빼앗은 10대들

광주북부경찰 남녀 6명 검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여성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무서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범행은 못된 어른들의 탐욕과 죄의식 없는 무서운 10대들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모(19)군 등 남·여 6명은 지난 2월 26일 광주시 북구 A모텔에서 만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델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자는 것이었다.

성매수남도 처벌 대상인 만큼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막내인 박모(18)양을 내세워 J채팅 어플에 "조건만남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성매수남인 김모(42)씨는 박양과 연락한 뒤 A모텔을 찾았고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간 틈을 타 이군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

A모텔 주변에서 대기하던 이군 등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내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느냐"고 폭행한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았다.

빼앗은 돈은 생활비와 유혹비로 다 썼다. 이들은 돈이 떨어지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지난 한 달 간 광주·대전·청주 등지에서 저지른 범행은 모두 20건(현금 950만 원).

무서운 10대들의 범행은 못된 어른들의 신고로 달미를 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이군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전 직원에 '뒷돈' 전기업체 대표 구형량 뒷말 무성

2억여원 상납한 3명 집행유예
"사회적 파장 비해 관대" 지적

한전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건넨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관련 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한전 직원이 10명에 이르고 입찰 시스템 비리 수사로 번지는 등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구형량이 관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8일 광주지법과 전기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전 비리 수사와 관련, 총무를 두고 전체 공사액의 2.5~4%씩 돈을 모아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하는 등 혐의(제 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기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전 직원들에게 2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제 3자 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최근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전 직원들에게 전달할 목

적으로 A씨 등에게 2억9800만원을 교부한 혐의(제 3자 뇌물공부)로 기소된 B(55)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또 8400여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는 징역 6월, 집·유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씨의 경우 구형 내용이 공개가 안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과 관련, 이들이 사실상 뇌물공여자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배려'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인하고 있는 D(5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려온 '관례' 등도 거론된다.

검찰 구형량과 관련, 전기업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로 자칫 부실한 전기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검찰이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 20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비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말도 나온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채팅 연상녀 마음에 안들자 돼지저금통 털어 줄행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연상의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녀 마음에 돼지저금통을 훔쳐 나온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임모(21)씨는 지난 2월25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여·33)씨의 주택에서 A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현금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쳐 달아났다.

○...나이는 물론 자신의 이름까지 속인 채 최씨와 두 차례 가랑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도망치는 겁에 용돈이나 쟁겨려 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선(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